



GE-한양대, 항공 기술 공동 개발 협약 체결 “한국 미래 먹거리 산업 위한 기술 개발 선도할 것”

- GE, ADEX2015에서 첨단 항공기술 시연
- GE, 항공 원천 기술 바탕으로 한국 미래 성장 동력 발전 지원
- 한국에서 첫 산학협력 협약 체결 - 항공기 엔진 소음저감기술 공동 연구 개발 및 기술 인재 양성

2015년 10월 21일, 서울 - GE는 오늘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 2015)’에서 한양대학교와 항공 엔진 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글로벌 아카데미 프로그램 (Global Academic Program)’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식에는 GE항공의 마이크 윌킹 부사장, 한양대학교 응용공기역학연구실 조진수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기술 인재 양성과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GE와 한양대는 오늘날 상용기 엔진 기술의 최대 도전과제 중 하나인 소음 개선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용기 엔진에 주로 채택하고 있는 고 바이패스(high bypass ratio, 엔진에서 배출되는 공기 유량) 방식은 바이패스 비율이 높아질수록 엔진효율이 높아지는 반면, 엔진 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커진다. 양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용기 엔진 소음 저감 소프트웨어 기술 및 설계 최적화 연구를 한양대학교 응용공기역학연구실과 공동으로 2년간 진행한다. GE는 이번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 다른 대학 및 연구진들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E항공의 마이크 윌킹(Mike Wilking) 글로벌 사업 개발 부사장은 “GE는 한국의 기술 역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우수한 한국 인재와의 협력을 통해 항공 기술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항공 산업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앞으로도 한국 인재 개발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응용공기역학연구실 조진수 교수는 “항공우주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첨단 기술 집약 산업으로, 선진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과의 협업은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 항공 엔진 기술을 선도하는 GE와 협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항공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GE는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는 ADEX 2015에서 GE 부스와 살레를 운영하며 최첨단 엔진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GE 살레에서는 3D 영상관 및 터치스크린 등 첨단 시연 기술을 활용해 GE항공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한국 항공 산업과의 파트너십과 KF-X에 제안하는 F414엔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GE가 KF-X에 제안하는 F414 엔진은 추력 22,000파운드 급의 쌍발 엔진으로, 미해군 F/A-18E/F 수퍼호넷,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브 그리펜 NG, 그리고 인도 테자스 경공격기 마크II (Tejas



LCA Mark II)도 F414 엔진을 채택한 바 있다. F414는 이미 호주, 브라질, 인도, 스웨덴, 미국 등 5개국이 1,500대 이상 구매 또는 선정할 만큼, 전세계 전장에서 성능, 안전성, 유지보수성, 신뢰성, 획득성(Affordability) 등에서 입증 받은 엔진이다. 현재 GE는 F414 엔진의 추가 성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KF-X 생산 이전에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GE는 전세계 5만 8천기 이상의 제트 엔진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100년 이상 항공기 핵심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다. 한국에서는 1976년 출범후 1,700기 이상의 엔진, 항공전자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에너지, 헬스케어 등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 제공하며, 국내 항공 방위 산업 발전을 지원해 왔다. GE 엔진은 한국군에서 운용 중인 F-4 팬텀, F-5 제공호, F-15K 슬램이글, T/FA-50 골든이글, KUH 수리온, UH60 다목적 헬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이지스 구축함 등에 채택되었다. 또한 철충교역 등을 통해 국내 기업과 항공 엔진 기술 및 서비스를 공동 개발을 진행해 한국의 항공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항공산업은 현재 조선해양, 자동차에 이어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다. 고급 인력 양성, 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육성 등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선진국들은 앞다퉀 국가주도로 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군용기와 민수기를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

문의

GE코리아: 정혜리 과장 (02-6201-4025)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도윤/신수정/이수경/최지원(T: 6323-5074, 5060, 5075)